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유방암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국내 만 18세 이상 여성 환자 중 2015년 1년 동안 원발성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1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평원의 유방암 평가 목적은 여성 암에 있어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방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보조요법 ▲결과 지표 (평가 입원일수, 입원진료비 등 2개 항목) 등이다.

평가 결과 전체 종합 점수 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환자 평균 입원 일수는 8.8일로 전국 평균 8.9일보다 짧았고, 진료비는 362만1천 원으로 전국 평균 381만9천 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년 연속 100점 만점을 받아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도 우수한 병원임이 입증됐다.

폐렴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렴 제2차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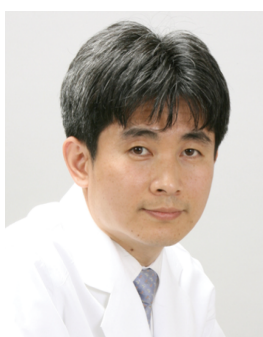
평가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56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 지표마다 거의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호흡기 질환에 있어 우수한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

심사평가원 평가지표는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 도말 검사 처방률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 배양 검사 처방률 ▲항생제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결과이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및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했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 뇌졸중 국제학술지 부편집장 선임



김동억 교수가 6월부터 뇌졸중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Stroke (impact factor 5.6)의 부편집장으로 선임됐다.

Journal of Stroke은 뇌졸중과 관련된 양질의 종설과 임상 및 기초 연구 논문을 발표해오고 있는 저명 학술지이다.

김동억 교수는 “부편집장으로 선임되어 큰 영광이고, 편집장을 도와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등을 포함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Journal of Stroke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파주지역 저소득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25일 고양·파주지역 저소득 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소재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 시청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공무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원 사회사업실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는 고양·파주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복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주요 논점으로 각 행정구 및 관공서마다 분절된 의료사회 복지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고, 위기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파주지역 의료지원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 신륵사로 사찰 순례 다녀와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5월 28일 역사와 문화 향기가 가득한 여주 신륵사에서 춘계 사찰 순례를 진행했다.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지닌 천년고찰 신륵사는 고려 말의 고승 나옹와상의 열반 성지이며, 한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 대왕을 모신 영릉의 원찰로 불교문화와 민족 정서가 깃들여 있는 사찰이다.

연우회 회원들은 이날 모처럼 일터를 벗어나 신륵사의 밝은 햇살을 받으며 문화재 해설사의 도량 안내로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륵사다층전탑 등 문화재를 둘러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신륵사 주지 성곡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모으려면 나무를 심고, 좋은 경치를 보고 싶으면, 담벼락을 낮춰라.”라고 말 하고, “업과 복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베풀며 살라.”라며 법문을 마쳤다.

